

토성면

토성면은 법정리 16개 행정리 33개 130개반을 형성하고 있다. 총면적은 119.74km²이다. 1991년 세계잼버리아영대회를 신평리(新坪里)에서 개최함에 따라 대대적인 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세계 속의 한국을 부각시키는 약속의 땅으로 각광 받고 있다. 천진리, 청간리, 아야진리, 교암리, 백촌리, 운봉리, 학야리, 도원리, 성대리, 용암리, 신평리, 인흥리, 성천리, 원암리, 용촌리, 봉포리 마을이 있다.

▶토성면 시민기자 강성희(ruthcanada@hanmail.net), 김태극
 ※토성면에서 발생하는 아기자기한 소식이나 미담 등을 소개하는 시민기자를 모집한다. <문의 : 681-1666>

토성농협 하나로마트 확장영업 공방

천진·봉포 상인회 “생계 위협, 폐점시간 조정해야”... 하나로마트 “속초로 나가는 고객 잡는다”

토성면 천진리와 봉포리 일원에서 소규모 영세 마트와 정육점 등을 운영하는 지역 주민들이 지난해 11월 19일부터 확장 영업에 들어간 토성농협 하나로마트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토성면 천진리·봉포리 상인연합회(회장 이재영)는 지난 1월 10일 주민 33명이 서명한 진정서를 고성군에 보내 농협 하나로마트의 영업시간을 평일 오후 6

시, 토요일 오후 2시, 일요일 휴무 등으로 조정하는 데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주민들은 “천진리와 봉포리에서 기업형 마트인 농협 하나로마트가 확장营业을 하는 것은 주변 상인들은 영업을 하지 말고 상점을 폐업하라는 말과 같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성농협은 고성군에 보낸 답변서에서 하나로마트

를 증축하게 된 것은 펜션 등 숙박업체들이 속초까지 나가서 물건을 사야하는 불편을 호소하고, 조합원들도 마트 확장의 필요성을 계속 제기해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성농협은 또 지난해 11월 확장 개업 당시 동절기는 오후 8시, 하절기는 오후 9시까지 영업을 하다가, 인근 상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현재는 동절기 오후 7시, 하절기 오후 8시로 폐점시간

을 조정했다며 더 이상은 양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토성면 천진리·봉포리 상인연합회 이재영 회장은 “서로 공생해야지, 다 죽고 하나로마트만 달랑 살아남게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지금 경제가 말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토성농협 관계자는 지난 17일 “보다 큰 문제는 주민들이 속초

까지 나가서 물건을 산다는 데 있다”며 “속초로 빠져나가는 주민들과 관광객의 발길을 우리 농협에서 잡아둔다면 결과적으로 고성군에 이익이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한편 천진리·봉포리 상인연합회는 조만간 토성농협을 방문해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광호 기자



당신에게 손이 있습니다.
당신마음에 친절도 있습니다.

계단의 길이만큼
당신의 손은 아름답습니다.

※바로잡습니다 본지 제2호(2월 14일자) 9면에 보도된 고성경찰서 인사발령 기사와 관련 '간성파출소장에 신승택 경사'란 제목을 '간성파출소장에 신승택 경위'로 바로잡습니다. 편집과정에서의 실수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도학초교 방학 영어캠프 신나요”

아이들이 '재미있었다'고 할 때, 영어는 더 이상 '정복'의 대상이 아니다

요즘은 영어 거점 학교도 있고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단기 영어 캠프들도 많아 고성지역의 학생들도 영어 캠프를 경험해 봤을 것이다.

아이들을 몇명씩 추려서 영어 캠프에 보내는 것이 담당 선생님들로서는 훨씬 일이 수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부터 지금까지 여름과 겨울 방학마다 전학년이 참여하는 학교 자체 영어 캠프를 쉬지않고 실시하고 있는 작은 학교가 있다.

이번에 여섯번째로 학교 자체에서 실시되는 영어 캠프의 주강사를 맡으면서, 폭설 때문에 아이들과 약속한 캠프 일정을 불가피하게 이를 미뤄야 했다.

캐나다에서 온 원어민 케이트와 함께하는 이번 캠프는 2월 16일부터 25일까지 열리고 있다. 오전 두시간은 1,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오후 4시간은 3~6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아이들에게 방과후 영어를 가르치면서 느끼는 점은 수업을 거치면서 점차 영어의 수준이 올라가는 일관성 있는 프로그램



도학초교의 방학 영어캠프는 즐거움이 넘쳐난다.

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영어 수업을 희망하는 아이들이 학기마다 바뀌는 현실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도학초등학교처럼 방과후 수업과 영어 캠프를 전교생이 참여하고 이를 지도하는 강사가 일관되게 수업의 프로그램을 짜도록 학교에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영어에 훨씬 친근해지고 듣기와 말하기 수준이 향상된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원어민과 함께하는 수업이 훨씬 효과가 있는데, 아이들은 원어민과의 수업을 통해 영어가 공부거리가 아니라 하나의 의사전달 수단임

을 느끼게 되면서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진다.

캠프를 하면서 '재미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면, 몇시간씩 활동을 해도 머리가 아프거나 힘들지 않다면, 팀과 함께 발표를 하고 퀴즈를 맞추고 게임을 하며 웃을 수 있다면, 영어는 더 이상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게 된다.

어른들의 세대보다 영어에 대한 노출이 비교할 수 없을만큼 많아진 아이들에게 영어가 더 친근해질 수 있도록, 영어를 듣고 말하는게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케이트와 나는 머리를 맞대고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강성희 시민기자